

[특집]

문화의 복음화로 바라본 회칙 「모든 형제들」*

■
김 민 수

[서울대학교 청담동본당 주임신부]

머리말

1.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개념과 의미
 - 1.1.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
 - 1.2. 문화의 복음화 개념과 의미
 3. 회칙 「모든 형제들」이 바라본 현대문화의 현 실태와 새로운 문화 건설
 - 3.1. 현대문화의 현 실태
 - 3.2.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위한 대안문화인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
 4. 한국가톨릭교회에 회칙 「모든 형제들」의 적용
 - 4.1. 한국사회 현황
 - 4.2. 한국가톨릭교회의 현황
 - 4.3. 한국가톨릭교회의 사목적 대응: 문화의 복음화 관점에서
- 나가면서

머리말

21세기에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세계화는 급기야 문화의 세계화로 갈아타면서 글로벌 문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야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화의 대변동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차원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갈등과 대립, 사회적 약자의 소외

* 이 글은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심화, 급속한 지구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낸다.

한국은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한류, 스포츠, 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일구어 내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어왔다. 특히, 최근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2020),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과 <지옥>(2021)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는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넘어 게임과 웹툰, 음식과 패션, 관광, 화장품,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드높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공고히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우산 속에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및 부의 불평등, 높은 자살률, 비자발적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끊임없는 이념대립과 갈등, 집단주의, 부정부패 등 사회적인 병적 징후가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한국가톨릭교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 가톨릭신자 수가 전 인구 대비 11.2% 복음화율을 기록할 정도로 양적인 증가가 꾸준히 이어왔다.¹⁾ 전 세계로 파견되는 해외 선교사들, 한국 카리타스와 여러 교회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해외원조 및 국제적 지원으로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그 위상이 전환되어왔다. 또한 레지오마리아, ME, 꾸르실료와 같은 평신도 신심 운동 단체들의 깊은 신심 행위와 적극적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토착화로 교세 확장과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뒷에 걸리면서 냉담교우 증가, 세속화와 중산층화, 탈종교화, 고령화, 교회 권위주의, 이념갈등에 따른 분열, 웰빙 교회 등 심각한 교회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 참조: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4.7.

19 상황으로 한국 가톨릭교회는 안타깝게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유용한 대안을 최근 반포된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2020)에서 찾고자 한다.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을 핵심으로 하는 이 회칙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며 지향하는 구원을 실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문화’를 해석과 해법의 틀로 전용하고 있다. 이 회칙은 외견상 제6장에서 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언급하는 듯하지만, 사실 광의적인 문화 개념을 적용한다면 회칙 전반에 걸쳐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전 회칙인 「복음의 기쁨」(2013)에서도 대체로 문화적 접근을 통한 분석과 새로운 복음화 혹은 ‘문화의 복음화 필요성’²⁾을 강조해 왔다는 면에서 회칙 「모든 형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복음화의 구체적 형태인 ‘문화의 복음화’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회칙 「모든 형제들」을 재고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본 논문은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소개한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문화의 복음화라는 렌즈로 현대 문화의 현 실태를 성찰한다. 마지막으로, 회칙 「모든 형제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문화’를 사목과 선교에 적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개념과 의미

1.1.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앙고백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이다. 창

2)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20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69항.

세기에 나오는 7일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창조행위가 자세히 기술되는데, 특히 인간에게 모든 창조물을 맡기시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다(창세 1,28 참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창세 2,20). 이 두 가지 권한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다. 하느님이 마련해주신 자연을 인간이 맡아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과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하느님 창조행위의 모방이라 하겠다.

개신교의 문화신학자 김영한은 하느님의 문화명령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느님의 창조행위가 근원적이고 문화적인 행위였다면 인간의 문화적 사명이야말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문화적 창조의 질서를 개간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화적 사명은 하느님의 창조명령이요 축복이다.³⁾

하느님은 당신의 문화명령을 통해 인간들에게 창조과정을 이어가는 임무를 맡기셨기에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 창조사업의 동반자’이다. 따라서 문화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종교적 의무이자 책임이다.⁴⁾ 하느님의 문화명령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태 28,19~20 참조)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선포’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때와 장소, 세대와 상황에 맞추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한다. 대표적 인

3)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5, 33쪽; 신웅철,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006, 24쪽.

4) 정혁현 역,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중문화 읽기』, IVP, 2004, 66쪽. Romanowski, William D. *Eyes Wide Open*, Brazos Press, 2001.

물로 이방인의 선교사인 바오로 사도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소아시아 지역을 세 차례나 선교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언한다. 특히 그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행한 복음 선포는 초기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문화의 만남이고 두 세계를 종합한 것으로, 오늘날 신앙의 토착화에 유익한 ‘문화의 복음화’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⁵⁾ 아테네에 도착한 바오로 사도는 먼저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전과 시장, 그리고 회당을 다니며 지역문화를 숙지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아레오파고스 광장에서 그는 그들이 믿는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며 그 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한다(사도 17,16-34 참조). 그들의 우상숭배로부터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시킨다.

1.2. 문화의 복음화 개념과 의미

1.2.1. 문화의 복음화 개념

전 지구적인 사회문화변동은 교회의 구조와 조직, 선교와 사목의 실천방식, 신앙생활 행태에 다양한 방식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 교회문화가 모든 삶의 양식을 지배하던 때의 전통적인 선교, 사목, 교육, 신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롭게 변화되도록 도전받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복음화라는 자기실현을 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는 세계를 향한 일방적인 자기 확장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이 시대의 지배적인 현대 문화와 대화, 상호교류 및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자신을 문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대 문화를 객체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동일한 주체로 인정할

5) 이 문장의 일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 12월 4일 그리스의 사도 순방 첫날 성 디오니시오 주교좌 성당에서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 교리 교사들을 만나 연설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작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애를 함양하십시오.” 『바티칸뉴스』, 한국어 서비스, 2021.12.4.

때만 가능하다. 교회와 문화의 소통은 복음과 문화의 만남과 관계, 그리고 해석과 실천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부여한다. 복음과 교회에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문화의 복음화’야말로 문화의 시대에 적합한 복음화의 길이라 하겠다.

문화의 복음화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⁶⁾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며 “오로지 문화를 통하여, 곧 자연의 재화와 가치를 개발하여 참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이르기”(『사목헌장』, 53항) 때문에 문화의 복음화 없이 온전한 인간성 회복과 복음화, 나아가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올바른 문화의 형성, 그리스도교적 문화 창조야말로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문화의 복음화는 ‘문화를 통한 복음화’와 ‘문화에 대한 복음화’로 나눌 수 있다. ‘문화를 통한 복음화’는 문화의 긍정적인 차원을 전용하여 그리스도교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지역교회의 생활에서 실현하는 것이다.⁷⁾ 여기서는 문화를 복음 메시지에 맞게 표현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한다.⁸⁾ 급변하는 문화의 시대에 교회문화는 타자문화(현대문화)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과거에는 타자문화가 교회문화에 종속되었지만 오늘날 타자문화는 세상과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유일하게 가치제공을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상실하고 현대문화 혹은 대중문화에 넘겨주고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가 자본화, 권력화되면서 가정·학교·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타자문화인 현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고 새로운 교회문화

6) 참조: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2부 2장, ‘문화 발전의 촉진’.

7) Robert J. O'Donnell, CSP, "John Paul II on Evangelization of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The Living Light*, 1993, Vol.30, 이 내용은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교황청 문화평의회 3차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다.

8) 이러한 내용 역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교황청 문화평의회 3차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와 확산을 통해 세상의 복음화에 투신해야 한다.

‘문화에 대한 복음화’는 교회가 자주 언급하는 문화의 복음화로써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즉, 세상의 비복음적 문화에 대해 교회가 비판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 문화를 변형하는 것을 문화의 복음화로 인식한다. 교회가 문화에 대한 복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적 영역이 방대한 전통적 그리스도교 국가조차 복음과 무관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죽음의 문화가 한층 심화되고 만연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복음화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에 반대되거나 그리스도교 사상이 결여된 문화에 도전하여 교정하거나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⁹⁾

궁극적으로, 문화의 복음화는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자연스레 느끼게 하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우리 삶을 투신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삶 안에서 하느님의 육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이 문화이기 때문에 신앙은 문화 속에서 육화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교회, 세계, 그리고 개인이 상호 소통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구체적인 복음화가 다름 아닌 문화의 복음화이다.

1.2.2. 프란치스코 교황 전후 문화의 복음화 담론

1.2.2.1.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

1975년 반포된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인 「현대의 복음선교」(1975)는 양적 복음화뿐 아니라 질적인 복음화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 복음화가 ‘어떻게 신자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질적 복음화는 ‘어떻게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비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복음적으로 바꾸는 복음화에 대해

9) Robert J. O'Donnell, CSP, 앞의 글.

회칙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회가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넓은 지역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반대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19항).

이 회칙에서 말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은 문화로 치환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화를 복음적 가치관인 생명의 문화로 전환하는 ‘문화에 대한 복음화’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회칙은 계속해서 복음과 문화의 괴리는 이롭지 못한 상황임을 적시하며,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항 참조).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복음화의 의미로 대체되고, 회칙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는 문화의 복음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에 대한 복음화’를 제시하고 있다.

서구교회는 절박한 신앙 위기에 맞서 대안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주창해왔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3년 ‘제19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새로운 복음화’라는 용어를 교회의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후 빈번히 여러 문헌을 통해 강조되어 왔다. 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 이 용어를 상속받아 2012년 ‘신앙의 해’(Year of Faith)를 선포하면서 개막 행사 성격을 띤 제13차 주교시노드 정기회의 주제를 ‘그리스도교 신앙 전달을 위한 새로운 복음화’(The New Evangeliz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the Christian Faith)로 정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도 2011년 각 교구 사목교서의 대부분이 새로운 복음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사목교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2012년에 “‘신앙의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자료집에서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새로운 복음화를 다루었다.

여러 교황을 거치면서 새로운 복음화 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은 시대 변화를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며, 그리스도교가 인간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아는 능력이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실천되어야 하는 복음화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와 교회의 구조개선 및 성숙한 교회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와 방향을 지닌다.¹⁰⁾

이제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다루어왔던 새로운 복음화 개념은 결국 거대한 문화변동을 겪으며 살아가는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문화의 복음화’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복음의 기쁨」(2013)으로부터 시작되고 회칙 「모든 형제들」(2020)에서 구체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1.2.2.2.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교황 2세부터 시작되어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 이어져온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 과제를 계속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¹¹⁾ 그는 교회 쇠신을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며, 방법적인 면에서 ‘문화의 복음화’로 구체화한다. 지금까지 반포한 회칙과 권고들을 통해 이러한 일관된 지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세례를 통한 하느님 백성의 동등성을 확인하여 함께 논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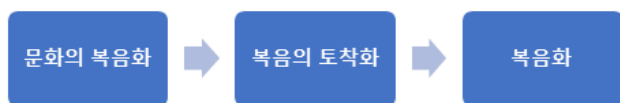
10) 김민수, “새로운 복음화는 문화의 복음화이다”,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심포지엄, 명동가톨릭회관, 2013.

11)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3, 14~15항.

협력하며(「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2019), 자기 성장과 안위만을 걱정하는 교회에서 벗어나 가난한 이웃에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복음의 기쁨」, 2013), 성직자나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각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덕에 초대받음(「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2017),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통합 생태론(「찬미받으소서」, 2015) 등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방향성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진로를 성찰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¹²⁾

또한 가장 최근 반포된 교황 회칙인 「모든 형제들」(2021)은 지금까지의 회칙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교회 쇄신 내지 자기 복음화와 함께 사회 복음화 실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문화의 복음화’가 직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문화의 복음화는 이미 「복음의 기쁨」에서 복음의 토착화와 연결하여 언급되며, 그 특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복음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문화의 복음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69항).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인 복음화가 복음의 토착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복음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인 것이다. 다음 도표는 회칙 「복음의 기쁨」에 따른 세 단계로 구성된 복음화 과정이다.

도표: 복음화 단계



12) 엄재중,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천주교회 사목 방향에 대한 서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월례내부세미나, 2021, 7쪽.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을 통해 복음의 토착화에 앞서 실현되어야 할 단계가 문화의 복음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의 도전들(52항~75항)을 열거하며 사랑과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밀과 가라지처럼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회칙은 다양한 현대문화가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명확히 식별하고 판단하여 ‘문화를 통한 복음화’와 ‘문화에 대한 복음화’를 촉구하고 있다. 교황은 이러한 문화의 복음화 과정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토착화, 복음의 토착화만이 진정한 복음화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천명한다. ‘신앙이 새겨진 문화’, 교회의 큰 자산인 ‘복음화된 문화’, ‘복음화된 대중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68항 참조).

3. 회칙 「모든 형제들」이 바라본 현대문화의 현 실태와 새로운 문화 건설

3.1. 현대문화의 현 실태

회칙 「복음의 기쁨」이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한 자기 복음화로써 문화의 복음화를 다루어왔다면, 회칙 「모든 형제들」은 세상의 복음화를 지향하며 문화의 복음화 과정을 다양한 현대문화,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준거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회칙 「모든 형제들」이 제6장에서 문화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만, 넓은 문화 영역 안에 회칙 전체가 수렴되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이 회칙이 제시한 몇 가지 현대문화의 어두운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3.1.1. 경제에 종속된 정치 문화

회칙 「모든 형제들」은 ‘더 좋은 정치’라는 소제목으로 제5장을 할애할 만큼 정치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회칙의 핵심인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실현하는 방편 중의 하나가 정치 영

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현실은 초국가적 경제 권력을 휘두르는 세계 경제에 짓눌려 암울하다.

세계 경제는 지역 분쟁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을 단일 문화 모형의 강요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세계를 획일화시키는 한편 개인과 나라들은 갈라놓습니다(12항).

경제의 세계화는 정치, 문화의 세계화를 가져왔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이 늘어나면서 소수만의 이익에 일조하여 강자의 정체성은 강화되는 반면 삶의 공동체와 가난한 지역은 약화되고 더욱 의존하게 된다. 세계화가 시공간적으로 압축된 지구촌을 이루며 서로 이웃이 되지만 형제가 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가 결여된 경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¹³⁾ 타인과 세상에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¹⁴⁾

3.1.2. 버림의 문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회칙과 권고, 강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내용 중의 하나가 ‘버림의 문화’이다. 오늘날 경쟁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른 ‘배척의 경제’가 심화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소수의 강자와 배척과 소외를 겪는 수많은 약자들로 극단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단순히 착취와 억압에 머물지 않고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인 ‘잉여인간’으로 취급되고 있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과 상품이 짧은 수명을 다하거나 과소비의 결과 엄청난 쓰레기로 폐기되듯이,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버리는 문화’는 현대 문화가 낳은 커다란 그늘이다.¹⁵⁾

13) 회칙 「찬미받으소서」, 196항.

14) 참조: 회칙 「찬미받으소서」, 228~232항; 회칙 「모든 형제들」, 154~197항.

15) 참조: 권고 「복음의 기쁨」, 53항; 회칙 「찬미받으소서」, 22항.

버림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징인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에 천착한 현대문화는 ‘마케팅’으로 전락한 정치 메커니즘에 따라 ‘지구적 버림’을 장려한다.¹⁶⁾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면서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는 배척받고 버림받는다. 빈곤으로 이어지는 실업이나 인종차별 역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예견된 산업재해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은 일종의 소모품으로 간주되는 죽음의 문화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3.1.3. 이주민을 향한 혐오 문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후 가장 먼저 난민 캠프촌을 찾아가는 사목활동을 수행했을 정도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보인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정치적 갈등, 전쟁 등으로 의도치 않게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과 난민들은 출신지, 문화와 종교와 단절,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배척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교황은 이들을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환영, 보호, 증진, 통합의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129항).

회칙은 다름, 다른 이, 다른 문화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가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역설한다(150항).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할 때 다른 이, 다른 문화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느끼고 혐오와 증오, 배척의 대상이 된다. 즉, ‘지역적 나르시시즘’은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벽 쌓기를 선호하는 폐쇄적인 정신에 집착하고 갇히게 되는 것이다(146항 참조).

16) 회칙 「모든 형제들」, 15항.

대표적인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체포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문화는 본질적으로 열려 있고 환대한다”(146항 참조).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은 고립이 아닌 다른 문화와의 대화를 통해 굳건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문화의 세계화가 획일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착적인 자국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유익한 새로운 통합이 이루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148항 참조). 상호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를 ‘적’이 아닌 ‘이웃’으로, 서로 주체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3.1.4. 커뮤니케이션의 환상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의 회칙과 권고를 통해 현대문화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을 심도 깊게 다루며 그것의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성을 서술한다. 우선,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다.

대중 매체는 우리를 서로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주고, 인류 가족의 새로운 일체감을 조성하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만남과 연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¹⁷⁾

인터넷을 포함하여 하느님의 선물인 대중 매체 혹은 매스 미디어는 만남과 대화의 문화를 촉진시킨다. “오늘날 매체는 우리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며 지식과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한다.”¹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비해 CCTV나 정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받으며, 관찰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는 ‘디지털 감시사회’를 체험한다. 이는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¹⁹⁾ 또한 사람들을 증독,

17) 회칙 「모든 형제들」, 205항.

18) 회칙 「찬미받으소서」, 47항.

19)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 42항.

고립의 위험, 그리고 현실 접촉 차단으로 참된 만남과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문화를 소개한다. 언어폭력과 같은 사회적 공격성을 띤 악플들,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는 디지털 플랫폼들, 신뢰할 수 없는 매체 정보를 바탕으로 동시다발적인 독백들을 교환하는 각종 SNS, 여론 조작과 위장에 따른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사색보다 검색에 익숙한 결과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²⁰⁾이 그것이다.²¹⁾ 알팍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고, 깊은 사색과 묵상이 결여된다면 교황이 제시하는 새로운 문화로써 만남의 문화를 이루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3.2.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위한 대안문화인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

3.2.1. 보편적 형제애

1789년 프랑스 혁명의 표어는 자유, 평등, 박애이다. 혁명 이후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구호가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인권선언에 따르면, 자유와 평등은 권리로 인정되는 반면 박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당시에 박애의 의미는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봉사에 해당한다. 자유와 평등이 상반된 각각의 이념을 명시한다면, 박애는 이념과 목표라기보다 정신과 문화를 뜻한다. 따라서 박애는 보편적인 인류애로써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도모한다. 최근에 와서는 본래의 의미가 약간 다르게 강조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대로 박애의 의미는 희석되는 듯하다.²²⁾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박애를 ‘보편적인

20) 최지향 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청림출판, 2015.

21)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 44-50항; 200-201항.

22) 참조: <https://blog.naver.com/h12xli/222536400920>.

형제애’로 받아들여 사회적 우애와 함께 인간을 증진하는 보편적 사랑을 지향한다. 시장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주장하고, 닫힌 세상에서 패거리들만이 누리는 평등을 개인주의적 권리로 간주하는 사고와 행위는 죽음의 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주요인이 된다는 것이다.²³⁾ 따라서 보편적 형제애는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버팀목이라 하겠다. 보편적인 형제애는 ‘대립의 문화’와 ‘장벽의 문화’가 아니라 희망과 쇄신의 길인 ‘만남의 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된다(27항, 30항 참조).

장벽의 문화를 만들고 벽을 높이고 싶은 유혹, 곧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막고자 마음속에도 땅 위에도 벽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재등장합니다. 벽을 높이 쌓는 사람들은 아무 지평도 없이 자신이 세운 바로 그 벽 안에 갇힌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타자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27항).

다른 이, 다른 문화,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벽의 문화, 대립의 문화는 현대문화 혹은 회칙이 말하는 ‘새로운 문화’가 낳은 죽음의 문화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불평을 가져오는 배척의 경제, 버리는 문화, 무관심의 세계화, 차별과 배제로 고통을 받는 이민자들과 난민들, 소비 지상주의, 이익과 일회용 문화에 기반을 둔 시장논리, 실업, 인종차별, 빈곤, 노예제, 인신매매, 낙태당하는 여성, 장기매매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열과 대립, 편협과 무관심, 차별과 폭력이 만연된 파편화된 세상에 만연된 죽음의 문화를 비판하고 대항하며 사랑과 생명의 문화의 대안이 바로 ‘만남의 문화’이다.

만남의 문화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회칙은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87항)이라고 언급한다. 우리의 삶은 상호 관계 안에서 유대, 친교, 형제애를 체험하며 성장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열린 존재, 열린 사랑, 열

23)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 103~111항.

린 마음, 열린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과 배제가 아닌 존중과 배려를 받는다. 그러나 만남의 문화는 타자를 ‘무조건적인 환대’로 대하는 자기 동일시 원칙에서만 가능하다.²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자를 자신과 같은 형제, 아니 오히려 ‘자신의 혈육’(이사 58,7)로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적 형제애다.

3.2.2. 사회적 우애

회칙은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현대 세계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2장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시한다.²⁵⁾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각자는 현대 세계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다. ‘강도들을 만난 사람’은 죽음의 문화로 인해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고, ‘강도들’과 ‘지나쳐간 사람들’은 죽음의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여관 주인’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협력자와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한다. 죽음의 문화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약자에 대한 무관심의 장벽을 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하느님의 뜻인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두와의 연대’이다. “연대는 역사를 만드는 길이며, 대중 운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연대입니다”²⁶⁾라고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대의 중요성을 간파한 발언이다.

24) 무조건적인 환대 개념은 자크 데리다(1930~2004)의 환대의 윤리학에서 유래한다. 그에 따르면, 환대는 타자 중심적 개념이며, ‘무조건적인 환대’다. 그는 예수님을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살았던 인물로 제시한다. 특히, 예수님이 들려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루카 10,25~37)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죽어가는 타자를 무조건적인 환대로 대접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다음을 참조하였음. 이상철, 『죽은 신의 인문학』, 돌베개, 2018, 99~125쪽.

25) 이하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였음. 오지섭, 박재신, 『서로와 모두를 위해』, 바오출판사, 192~194쪽.

26) 회칙 「모든 형제들」, 116항; 프란치스코, 2014년 세계 대중 운동 모임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4, 10, 28, AAS 106(2014), 851~852면.

사랑과 생명의 문화인 보편적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형제의 연대이다. 모두와의 연대, 공동체 차원의 행동에는 형제애에 대한 교육, 대화, 상호 관계와 공동 번영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증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103항 참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여관 주인과 여관은 오늘날 개인적으로 줄 수 없는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제도와 법적 규정, 또는 정책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의미하며, 그러한 인프라가 조직적으로 잘 형성되고 창의적으로 발휘되기 위해 정치적 차원이 중요하다. 정치가 열린 세상을 향한 진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회칙은 ‘더 좋은 정치’로 가기 위해 사회적 사랑으로써 정치적 사랑을 강조한다.²⁷⁾ 애덕의 사회적 차원으로써 정치적 사랑은 ‘명령받은 사랑’으로 “더 건전한 제도, 더 공정한 규칙, 더 건실한 조직들을 만들도록 이끄는 애덕의 행동들이다”(186항).

사회적 우애를 위한 궁극적인 삶의 방식은 만남의 문화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만남의 문화를 촉진한다고 간주된다. 만남의 문화는 “우리가 대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만남의 자리를 찾고 다리를 놓으며, 모든 이가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에 열정적이라는 의미이다”(216항). 대중이 다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만남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재촉한다.

27) 교회는 이미 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을 다루어왔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기 이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애쓰는 사랑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과 국민 전체가 가난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거나, 실제로 가난이 전 세계적 차원 사회 문제일 때에 특히 그러하다”(『간추린 사회교리』, 208항).

4. 한국가톨릭교회에 회칙 「모든 형제들」의 적용

4.1. 한국사회 현황

한국은 남북이 분단·대치된 유일한 휴전국가이면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역동적이고 급속한 기술변화를 겪어왔다. 그 결과로 2021년 올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해왔다. 또한 IT강국의 위용과 함께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이라는 k-콘텐츠뿐 아니라 k-food, k-fashion, 한국어 보급 등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일 만큼 한류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는 세계 문화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의 미래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그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죽음의 문화 현상들은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로 몰아가고 있다. 진영논리에 따른 끊임없는 이념논쟁과 사회 분열 현상, 대물림되는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갈등, 혐오와 차별 등이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배경으로 이어온 색깔논쟁과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 언론의 정파성²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증오와 분노, 폭력의 소모전이라는 피비우스의 피로 확대재생산한다. 부의 세습과 소득의 불평등

28) “언론의 정파성은 한국 사회 전반의 정치적 균열을 그대로 반영한다. 세대와 지역, 계층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균열의 선이 한국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소통을 잠식하고 있고, 이것이 언론이라는 지형에도 반영된 것이다. 미디어 이용자 시장 역시 이러한 구분선을 따라 분열돼 있다. 정파성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언론의 행태는 사회적 균열에 편승해 체계화된 무지를 조장하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 셈이다. 언론의 정파성은 사회 상황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사회 갈등을 부추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파적 언론이 던지는 목소리에는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따를 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참조: 임영호, “[품격과 시장] 조희수 경쟁·정파성 버려야 개혁의 씨앗 움튼다”, 『신문과 방송』, 2021년 1월호, 14-19쪽.

으로 심화되는 빈부격차는 건강, 교육, 수입 등에서 불평등을 동반하면서 고용과 복지의 불안, 사회적 범죄나 자살 증가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갑질문화 역시 우리 사회의 죽음의 문화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여성 혐오를 비롯하여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연결된 갑의 을에 대한 갑질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이나 조직 내 구조적 갑질 폐해 등은 권위주의 문화나 개인 윤리의식 부족에 기인한다.²⁹⁾ 또한 이주노동자, 난민, 탈북민 등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2021년 전체 인구의 2.1%인 109만 명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고, 태어나는 아이의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며 앞으로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³⁰⁾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이지만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배제와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 안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하는 ‘포용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게다가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경제활동인구를 급감시키며 ‘인구절벽’의 현실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올해 16.6%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2025년에는 20.6%로 올라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율은 2020년에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29) 참조: 박소망, “사상 첫 서비스노동 인식조사 [...] 10명 중 9명 ‘갑질 심각’”, 『노동법률』, 2021.9.15.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33137

30) 이주민은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외국인, 세대별로는 1세, 1.5세, 2세 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날이 그 규모가 증가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한국의 체류외국인 수는 2,524,656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였다. 외국인주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자녀인 ‘이주아동·청소년’ 수는 2018년 11월 1일 기준 226,145명이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류외국인, 국적취득자, 이주아동·청소년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달했다. 참조: 설동훈, “고령화에 중요성 커지는 이주민 복지 정책 시급”, 『노컷뉴스』, 2020.4.7.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면서 사회변화를 주도한다.

한국 사회 안에서 1인가구가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집단이 단순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가구 구성의 동기나 이들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³¹⁾ 우선, 개인주의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싱글족’인 ‘자발적 비혼 가구’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고용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청년 고독사 등 사회적 위협의 증가와 더불어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좌절과 박탈감으로 ‘비자발적 비혼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중년 1인 가구’로써 ‘이혼 혹은 별거’가 크게 기여한다. 네 번째로는, ‘노인 1인 가구’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이 배우자 사별로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으로 빈곤, 외로움 등 경제적·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이 요청된다.

최근 불거진 새로운 죽음의 문화로써 아동학대나 디지털 성범죄는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점점 위험사회로 내몰고 있다. 중대 범죄에 속하는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³²⁾ 아동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부모들이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부모나 부모로부터의 학대 대물림을 받은 부모의 학대가 차지한다. 그런 면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처벌이나 예방교육도

31) 참조: 강유진, “한국사회는 ‘혼자살기’를 선택할 것인가?: 가족 변화 실태를 중심으로”, 『월드뷰』, 2021, 5월호.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6173>

32)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이었고 아동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신고, 학대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2.9%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었다.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신고 건수를 보면, 2003년 2,921명이 2013년에는 6,796으로 매년 천천히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 10,027명으로, 2018년에는 24,604명, 2019년에는 30,045명으로 급증했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가 최근에 와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났다.

중요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아동 양육의 양극화 해소와 불우아동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³³⁾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악용하여 유포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면,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³⁴⁾이다. 2019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구매하도록 배포한 성범죄를 일컫는다. 점차 확산되는 성착취 산업은 왜곡된 성문화와 내면화된 가부장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명경시 현상과 배금주의를 사회에 만연시키기 때문에 생명존중 사상과 인격적인 성교육이 절실하다.

4.2. 한국가톨릭교회의 현황

최근 한국사회의 변동은 한국가톨릭교회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막대하게 미쳐왔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눈부신 변화에 힘입어 교회 역시 매우 안정적인 교세 성장과 조직화된 신심단체의 확장이라는 양적이고 외적 복음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³⁵⁾를 향한 다양화와 다변화된 신앙 실천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교회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교회 안팎으로 형성되고 고질화되는 비복음적 현상들을 드러내면서 교회 쇄신과 자기 복음화를 통한 내적이고 질적 복음화가 절실히 요청되

33)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에는 ‘섹스팅’ ‘그루밍’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 등이 포함된다. 참조: 김상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9권, 1호, 2021, 57~74쪽.

34) 참조: 이수범과 송민호,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권 4호, 2020, 150~195쪽.

35)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는 2011년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복음화 2020운동’ 일환으로 교구가 2020년을 향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과 실천을 위한 주제다. 11년이 지난 2022년 역시 교구 사목교서의 주제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이다. 서울대교구는 장기적인 교구 목표가 될 만큼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와 열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절실하고 절박한 교회 현실의 대응이기도 하다.

고 있다. 교회 내적으로는, 세속화와 중산층화, 탈종교화, 성직자 중심주의, 웰빙 교회 등과 같은 새로운 복음화의 걸림돌이 교회 쇠퇴의 징후로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냉담교우 증가와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로 교회 성장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교회 외적으로는, 개인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라는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문화 현상들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은 소극적이다.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제, 배아줄기 세포 등에 대한 생명윤리에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있어왔지만 문화의 시대에 제기되는 새로운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현 교회는 자기 복음화와 세상 복음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의 복음화라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4.2.1.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최근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2021’³⁶⁾에 따르면, 2014년에 50%였던 종교인 비율이 2021년에는 40%를 보이고 있다. 탈종교화 현상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로, 비종교인의 54%는 ‘관심이 없어서’, 19%는 ‘종교에 대한 불신’ 때문이며, 17%는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종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과거에 비해 훨씬 크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2014년에 63%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2021년에는 38%에 불과하다. 7년 사이에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편이다. ‘기적’에 대해 믿는 사람은 57%이고, ‘죽은 다음의 영혼’과 ‘극락/천국’ 각각 43%, ‘절대자/신’ 39%, ‘귀신/악마’ 38% 순으

36)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냈다.

로 나타난다. 비종교인 중에서도 45%는 기적의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하고, 내세에 대해서 23%가 믿는다고 응답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비종교인 중에서도 영적인 차원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종교적 차원 또는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로서의 종교는 쇠퇴하지만 영성적 차원의 공동체적 돌봄이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탈종교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종교적 역할에 대한 도전이고 기회인 셈이다. 특히 만남의 문화를 촉진하는 종교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탈종교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2.2. 교회의 세속화와 중산층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 때 주교회의의 연설에서 한국 교회의 중산층화를 경고하고 ‘웰빙 교회’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복음의 기쁨」, 198항)를 주문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제의 강론에서 가난의 영성조차 실종된 느낌이며 설사 다룬다고 해도 부유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이에 무뎌져 있는 듯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리는 중산층의 교회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이 되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사회 참여에 대한 열의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영적 세속성’을 경고한다. 이것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다.”(「복음의 기쁨」, 93항) ‘껍데기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인 교회’(「복음의 기쁨」, 97항) 안에서 “권력과 특권과 쾌락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이에 방해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름”(「복음의 기쁨」, 98항) 때 새로운 복음화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새로운 복음화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복음의 기쁨」, 198

향)이기 때문이다.

4.2.3. 시노달리타스의 걸림돌, 성직자 중심주의

회칙「모든 형제들」은 대화문화를 통한 사회적 우애를 강조한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서로 표현하기,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서로 바라보기, 서로 알아가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이 모든 것이 동사 ‘대화하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198항) 대화문화가 교회 복음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 특히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대화는 진정한 사목과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 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세계주교시노드는 ‘시노달리타스’ 즉 ‘공동 합의성’ 혹은 ‘함께 하는 여정’을 주제로 하여 2021년 올해 개최되어 2년 간 지속된다. 시노달리타스에는 경청, 대화, 친교, 참여, 그리고 사명이라는 차원을 포함한다.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직자 중심주의나 성직자 권위주의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레 작동한다. 교회 기관이든 본당 공동체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성직자 권위주의에 반기를 든 사례가 있다.³⁷⁾ 최근 모 본당 사목회가 본당 주임 신부와 의 갈등으로 총사퇴한 일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당 신부가 어느 사안에 대해 단독 결정해 회의 전에 지정 통보했기 때문이다. 사목회 위원들과 소통 없이 사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다면 사목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도자와 복종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배워야 하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성직자 중심주의를 ‘교회의 악’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³⁸⁾

37) 정현진, “공동합의적 사목평의회, ‘함께 간다는 것은 서로 견디는 것’”,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2021.8.2.

38) 참조: Celine Hoyeau, “Pope sees no alternative to synodality as the way forward for the

4.2.4. 미사 참례율 감소, 냉담교우와 교회 이탈 신자의 증가

한국 천주교회 신자는 2020년 현재 592만 3300명으로, 총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0.1%씩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³⁹⁾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영세자 유입이 크게 줄어들어 신자 증가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주택총조사’(2015)에서는 천주교 신자 숫자가 389만 311명으로 2005년 총신자수의 31.4퍼센트(177만 5193명)가 10년 사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특히, 20-30대 젊은 신자 층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영세를 통해 신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탈자가 더 많이 늘어 성장의 빛이 바래고 있다는 뜻이다.

기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주일미사 참례율은 1999년 29.5%에서 2019년 18.3%로 10% 이상 떨어진 상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주일미사가 교차되면서 정확하게 참례율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례율 하락은 부의 양극화, 물질주의, 개인주의, 극심한 소비주의, 무한경쟁 사회의 현실에 젖어든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괴리 현상에 기인한다.⁴¹⁾ 냉담교우와 교회 이탈 신자의 급속한 증가는 위에서 언급된 교회 세속화와 중산층화, 그리고 성직자 중심주의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4.2.5.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의 증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고스란히 교회에도

Church”, *LaCroix International*, September 21, 2021.

39) 한국천주교회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21.

40) 박문수, ‘한국 천주교회 교세’ 변동 추이 분석(2000~2019년), [박문수가 본 교회와 사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0.5.6.

41) 한국천주교회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반영되고 있다. 10~24세 청소년 신자 비율은 전체의 10.9%(64만 4431명)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22%(130만 2590명)로, 세대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10년 전보다 청소년 신자가 6% 줄어든 반면, 어르신 비율은 8.4% 늘어난 셈이다. 한국 교회의 고령화 정도는 한국 사회보다 더욱 가파른 추세를 보인다. 60세 이상 어르신 신자 비율은 동일 연령대 주민등록 인구 비율보다 훨씬 많고, 10대 이하의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20대 초반 이하에서는 인구 대비 신자 비율에서 평균인 1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청소년 신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 사회를 인구절벽 사회로 몰아가는 저출산에 기인한다. 저출산 배경에는 일자리·주거·소득의 불안정이 깔려 있고 또한 육아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교회는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천을 통해 가정의 복음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기존 노인사목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빈곤과 질병, 우울과 고독에 내몰린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시스템 등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교회는 기존의 ‘예수-마리아-요셉 성가정 담론’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상 가정’으로 하는 가정 사목은 오늘날 대세가 된 1인 가구를 고려해야 한다. 피정, 강론, 가정교육 프로그램에 1인 가구 역시 새로운 유형의 가정으로 포함해야 하며, 특히 빈곤과 취약한 환경,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에 노출된 1인 가구에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4.2.6. 교회의 사회참여 약화

한국 가톨릭교회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해왔지만 최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적 안정과 복지체계를 갖추면서 대사회적 역할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사회에서 빛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재현됨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게다가 교회의 세속화와 중산층화로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에 대한 헌신과 투신의 동기가 약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성직자 중심적 문화와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⁴²⁾ 함세웅 신부는 신임 서울대교구장을 축하하며 시대의 징표를 읽고 기도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사목을 성당 안의 성사 집행으로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위해,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 공존과 동행으로 넓게 해석하고 펼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관리 위주의 사목 활동에 머물러 있고, 사회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한국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교회의 사회참여가 약화될 때 신앙과 복음화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회칙 「모든 형제들」이 말하듯이, 고통받는 타자 곧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한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공감한다면 한국 교회는 사회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3. 한국가톨릭교회의 사목적 대응: 문화의 복음화 관점에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복음화를 사명으로 한다. 복음화는 교회 내적 복음화와 교회 밖을 향한 외적 복음화인 사회 복음화로 나눌 수 있다. 내적 복음화는 교회 새신인 자기 복음화를 일컫는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한다”(『복음의 기쁨』, 174항). 따라서 내외적인 복음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편적인 복음화 사명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복음화로써 새로운 복음화가 강조되고 있고, 내

42) 참조: 황경훈, “새 교구장 임명과 교회개혁”,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1.12.15; 함세웅,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님의 서울교구장 선임을 축하하며, 함께 ‘시대의 징표’를 읽고 기도합니다”,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편 『선포와 봉사』 140권, 2021.11, 6-29쪽.

적이든 외적이든 새로운 복음화는 문화의 복음화로 구체화됨을 앞서 다룬 바 있다. 지금부터는 내외적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문화의 복음화로써 교회와 사회 현실에 비추어 사목적 대안을 찾는 노력과 그에 상응한 사목현장에서 시도해왔던 적용 가능한 다양한 ‘문화사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사목’은 문화의 복음화를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목 패러다임이다.⁴³⁾ 다시 말해서, 신앙을 삶이라는 문화 속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다. 전통적인 사목이 교회 안에서 수행되는 전례, 교육, 성사, 애덕 활동기도 등에 한정되어있었다면, 새로운 사목은 세상과 관련을 맺는 모든 활동, 예컨대 해방활동, 사회 및 인간 발전 활동과 같은 사회정의에 대한 사목으로 확장되고 있다.⁴⁴⁾ 특히 문화의 시대에 새로운 사목은 문화적 접근으로 복음화를 꾀하는 문화사목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교회 안의 활동을 사목으로, 교회 밖을 향한 활동을 선교로 경계를 지었던 전통적인 사목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들—복지·생명·환경·인권—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사목을 실천하여 문화의 복음화를 실현해야 한다. 우선, 한국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문화의 복음화를 위한 문화사목으로써 해외선교 사목, 디지털 문화사목, 칭찬 사목, 이주민과 난민 사목, 생명 문화사목, 사회문화 사목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문화사목들은 점점 쇠퇴하는 한국 교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죽음의 문화를 사랑과 생명의 문화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사목은 이미 본당이라는 사목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시하여 여러 번 검증과 수정 과정을 거쳐 많은 성과를 거둔 사목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에는 직간접적으로 회칙 「모든 형제들」이 제시하

43) 문화사목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음. 김민수, 『디지털 시대의 문화 복음화와 문화사목』, 평사리, 2008, 175~276쪽; 김민수, 『본당사목, 문화를 입다: 문화사목의 이해와 실제』, 평사리, 2017.

44) 한국교회사연구소, “사목직”, 『한국가톨릭대사전』, 제6권, 분도출판사, 1998, 3932~3933쪽.

는 보편적인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3.1. 해외선교 사목

최근 한국 교회는 세속화와 중산층화로 인해 엘리트 교회 혹은 웰빙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취미생활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액세서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편리하고 편안한 신앙 행태가 정착되고 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자본주의적 특성인 효율성과 합리성에 익숙해져 있고, 친교 공동체가 아닌 친목에 비중을 두는 그들만의 리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교회의 영적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회가 자기 복음화되고 복음적인 삶인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머물기보다 타자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자의 윤리학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얼굴’⁴⁵⁾을 만나는데서 교회는 자기 복음화라는 교회 쇄신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늘날 타자는 자본이라는 동일성 안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변방인들, 다시 말하자면, 소수민족, 빈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노숙자, 난민들이다.

교회의 자기 복음화를 위해 만나야 하는 타자 중의 하나가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제 3세계이다. 한국 교회는 해외선교를 통해 타

45) “레비나스는 타자를 전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 개념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다시 윤리와 연결시킨다. 기존의 윤리가 상징적 질서를 유지하며 체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그것이었다면, 레비나스의 윤리는 상징계 밖에서 유래하는 실재의 윤리다. 여기서 말하는 실재란 부동의 동자, 제1 원인으로서의 궁극적, 초월적 실재가 아니다. 실재는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 있지만, 현현하는 그리고 결코 잡히지 않는 무한의 어떤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얼굴’이라는 시적 언어로 표현했다.” 참조: 이상철, 『죽은 신의 인문학』, 91쪽.

자를 만나 신앙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나누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외선교는 대부분이 교구나 선교 수도회의 몫이고 본당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본당 공동체가 해외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본다. 본당 울타리 안의 전통적인 사목에 머물지 말고 울타리 밖을 향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하나는 본당 공동체에 ‘해외선교 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후원회는 해외선교를 위한 교육, 후원, 선교사 양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본당 차원에서 중장기 해외선교사 파견은 어렵겠지만 단기 해외선교사 양성과 파견은 가능하다. 또한 제3 세계로 신자들의 정기적인 ‘해외선교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지인들의 삶과 신앙을 체험하고 여러 형태의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쇠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기적인 ‘청년 해외봉사활동’이다. 동남아 어려운 지역에 청년들을 모아 단기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복음적인 나눔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의식을 형성하며, 청년들 간 친교와 유대를 통해 신앙심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것이 웰빙 교회로 변질된 한국 교회가 자기 복음화를 시도해야 할 목록 중의 우선적 선택이 되어야 할 문화의 복음화이다.

4.3.2. 이주민과 난민 사목

교회가 타자를 만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주민과 난민 사목이 있다. 최근 국내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교구나 수도회, 본당 등이 나서서 이주사목과 난민 사목을 실행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낯선 이국땅에서 신앙과 생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모국어 미사, 상담과 통역 서비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자녀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나 의료 서비스, 안정과 유대감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⁴⁶⁾ 또한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유엔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이 35%인 데 비해 우리는 2%밖에 안 된다. 게다가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혐오와 편견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⁴⁷⁾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오늘날 이주민들이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형제적 책임 의식의 상실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7-41항 참조). 또한 이주민들의 도착에 대한 응답을 네 가지 행동, 즉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를 통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기로 제안한다(129항 참조). 바로 이러한 행동이 우리 모두 형제자매라는 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회칙은 계속해서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도착이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문화들 사이에 만남의 이야기이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 가능성의 기회가 됨을 강조한다.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사목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만남의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이주민이나 난민이라는 타자와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고, 또한 상대방

46) 2018년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실시한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업종 이주노동자에 비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은 훨씬 열악하다. 한 가지 사례로, 2020년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겨울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99%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는데 이 가운데 69.6%가 임시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7) 2021년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는 무슬림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종교·인종·문화적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보겠다. 참조: 김일우, “종교의 자유는 어디로? [...] 이슬람사원 두 달째 막은 대구 주민들”, 『한겨레신문』, 2021.4.15.

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거나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3.3. 생명 문화사목

교회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과 사랑의 문화로 전환시키는 예언자적 사명을 오랜 시간 실천해왔다. 주교회의와 각 교구는 생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운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확산시켜왔고, 그 대표적인 활동이 낙태반대 운동이다. “낙태를 부추기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태아의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태아를 다루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다”(『복음의 기쁨』, 213항). 한국 사회 역시 최근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낙태죄 폐지로 귀결된 바 있어 기존의 생명운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요청되고 있다. 위로부터의 교육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실천이 그것이다.⁴⁸⁾ 오늘날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교회 생명운동의 대안은 ‘아래로부터의 생명운동’이 되어야 한다. 자율적 개인이나 개인 간 연대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생명 존중사상을 고취하게 하는 토론모임이나 현장체험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당마다 ‘태교 모임’의 활성화와 ‘주일학교 영유아부’ 신설

48) 교회 안에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주창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김종곤 명예교수다. 그는 현재 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태아를 살리자고 절실하게 호소하는 그는 기존의 교회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위로부터의 교육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던 시대는 지났으며, 신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교회 가르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과 연대하는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조: 이지혜, “태아 생명권 보호·출산 선택하도록 사회 여건 개선하는 생명운동 필요”, 『가톨릭평화신문』, 2019.6.30.

도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⁴⁹⁾ 그 외에도 본당 사목을 통한 여러 생명 관련 문화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면 자연스럽게 생명운동의 연장이 될 것이다. 교회는 생명을 중시하는 시민단체를 육성하거나 연대하고,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쉼터 마련 등등 실제적인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낙태는 살인’이라는 외침보다 ‘태아 살리기’나 ‘세상을 떠난 태아 영혼 치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생명 문제를 지나치게 낙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학교 폭력, 아동학대, 혐오와 갑질문화 등 반생명적이고 비복음적 현실에 대해서도 본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식화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4.3.4. 디지털 문화사목

교회는 디지털 문화를 수용하여 구성원 간, 조직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교회문화로 정착해가고 있다. 유튜브나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선교와 사목이 이루어진다. 미사나 강론, 교리와 영성 교육, 모임, 홍보 등을 위한 교회 안팎의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준다. 교회 직무인 복음선포, 친교, 봉사가 온라인 공간 혹은 가상공간을 통해서도 실현되고 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디지털 문화는 비복음적인 죽음의 문화를 확대재생산한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은 디지털 문화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지적한다.⁵⁰⁾ 두 회칙에 공통된 점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단

49) 태교 모임은 2013년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영유아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세 본당이 연계하여 본당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또한 영유아 교육은 서울대교구 청담동 성당에서 2021년 11월부터 주일학교 체제에 영유아부를 개설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토요일 어린이 미사 전에 실시하고 있다. 태교 모임이나 영유아교육은 교회가 강조하는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태아와 영유아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는 생명문화의 중요한 사례이다.

50) 참조: 회칙 「찬미받으소서」, 47항; 회칙 「모든 형제들」, 42~53항.

절시킨다는 것이다. 비방과 폭언이 난무한 악플,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침묵과 진리, 성찰이 배제되어 형제애에 기여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중독, 사이버 폭력,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죽음의 문화가 더욱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임중독, SNS중독, 포르노중독, 쇼핑중독과 같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지혜보다 지식, 즐거움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인격적 성숙보다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유혹하여 인간성의 상실 내지 자기 파괴라는 비극을 체험하게 한다. 아동 학대나 디지털 폭력 역시 디지털 중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불링, 악성 댓글, 사이버 스토킹,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나타나고, 이는 디지털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⁵¹⁾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이다.⁵²⁾ 이 사건은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배포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에 대한 교회의 대책으로 인간 존중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디지털 범죄의 뿌리에는 영유아와 청소년 시기의 디지털 중독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부모와 함께 하는 예방 캠프, 또는 대중신심을 활용한 가족 성지순례, 미디어 교육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당 차원에서는 사순 시기에 ‘디지털 금식’을 실시하는 것도 디지털 중독에 대한 문화사목이다.⁵³⁾ 또한 디지털 중독

51) 참조: 김두상,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29권 제 1호, 2021. 1월, 57~74쪽.

52) 1999년, ‘소라넷’으로 알려진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가 생겼다.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비디오가 유행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웹컴투비디오’가 생겼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2~4세 영·유아였고 20만개가 넘는 성착취물로 4억여 원의 수익이 났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사라져갈 무렵, ‘텔레그램’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n번방’의 시작되었다.

53) 사순시기에 금육과 금식을 하듯이, 그 기간 중에 개인이나 단체가 디지털 금식

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대중운동’⁵⁴⁾으로써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은 ‘천주교 스마트십 문화운동본부’⁵⁵⁾를 설립하여 디지털 문화의 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3.5. 환경 문화사목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서 공동의 집인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 쓰레기 문제, 온난화와 기후변화, 수질오염과 물 부족, 생물멸종과 삼림 훼손 등 지구의 부르짖음에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적 회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회칙 「모든 형제들」의 핵심인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정치적 사랑을 대안 중의 하나로 강조한다.⁵⁶⁾ 한국 교회에서는 주교회의를 비롯한 모든 교구가 각자 생태환경 위원회를 설립하여 봉사자 양성과 신자 교육, 그리고 우리농매장이나 여러 환경 단체들과 같은 정치적 대중운동을 실천해왔다.⁵⁷⁾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교류와 연대의 매개체인 우리농매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하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가톨릭농민회에 소속 분회와 연결되어

을 실시한다. 금식이나 금육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듯이, 디지털 금식 역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내지 일정 기간 끊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사순 시기가 시작될 때 미사 중에 전 신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식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식을 거행하는 것도 디지털 금식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54)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 169항.

55)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자치단체 등이 기업, 시민단체, 언론, 학계, 종교계와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범국민적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해 ‘스마트십 문화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2019년에는 각 종단별 ‘스마트십 문화운동본부’를 발족시킴에 따라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산하에 ‘천주교 스마트십 문화운동본부’가 설립되었다.

56) 참조: 회칙 「찬미받으소서」, 228~232항.

57) 가톨릭을 포함한 전국 환경단체가 연대한 ‘2022탈핵대선연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연대로 65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시민에게 탈핵의 시급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탈핵을 주요 정책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있어 생명, 생태, 영성,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농매장은 환경 문화사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본당에 우리농매장이 존재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도농간 거래뿐 아니라 분회와의 자매결연과 다양한 교류가 가능해진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계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응답으로 ‘가톨릭기후행동’이 출범하였고, 더 나아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거 top-down 방식의 일방적 지시보다 여러 환경운동단체의 연대와 본당에서 신자들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환경운동에 문화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운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들이 추구해온 새로운 복음화 작업을 이어받아 문화의 복음화로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자기 복음화라는 사목쇄신에 역점을 두었다면,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는 사회 복음화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사랑으로써 보편적 형제애를 선언한다. 폐쇄적이고 파편화된 현대 세계의 다양한 죽음의 문화는 열린 마음의 만남과 대화의 문화라는 생명의 문화로 치유될 수 있음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설득한다. 문화의 복음화는 신앙의 토착화, 복음의 토착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그것은 ‘신앙이 새겨진 문화’, ‘복음화된 문화’, ‘복음화된 대중문화’를 지향한다.⁵⁸⁾ 결국, 문화의 시대에 새로운 복음화는 문화의 복음화임을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자기 복음화를 위해

58) 참조: 권고 「복음의 기쁨」, 68항.

‘양 냄새 나는 목자’, ‘야전병원 같은 교회’,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교황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몸짓 하나하나가 형제적 연대로 연결되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시인들’⁵⁹⁾이 될 것을 요청하며, 그러할 때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나누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만남과 대화의 문화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 교회의 세속화와 중산층화는 ‘엘리트 교회’ 혹은 ‘웰빙 교회’라는 비판에 직면케 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사회 참여를 배제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성직자 중심주의와 교회 권위주의로 ‘시노달리타스’ 정신과 거리감이 있다. 이는 평신도에게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나타나 부정적인 제도 교회를 대변하고, 더 나아가 탈종교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세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일부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는 교회의 쇠퇴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 오래전부터 이념대립에 따른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존재해왔다. 사회교리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교리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에 지나친 방점을 찍음으로써 ‘일상’의 실천이 간과되는 아쉬운 점들이 있다.

교회 안팎의 여러 위기의 징후들은 문화의 복음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해외선교 사목은 단일한 신앙생활로 웰빙 교회가 되어가는 한국 교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자기 복음화로 이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생명 문화사목은 기존의 위로부터 생명운동보다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 아래로부터의 생명운동으로 나아가

59) ‘사회적 시인들’은 변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 크고 작은 수많은 행위들이 시의 언어처럼 창의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제안하고 촉진하고 해방시키는 정치적 대중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 169항.

게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중독과 디지털 성폭력, 여러 사이버 범죄들과 같은 새로운 죽음의 문화에 디지털 문화사목이 요청된다. 한국 교회가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온 환경생태 사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가 기폭제가 되어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환경 돌보미로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실천을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환경 문화사목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개인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영적 독서를 위한 ‘독서사목’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사상에 바탕을 둔 ‘칭찬사목’도 문화의 복음화를 위한 실천적인 사목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회칙 「모든 형제들」을 문화의 복음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또한 문화의 복음화 관점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해 본당 사목현장에서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치며 실시해온 문화사목들을 열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문화의 복음화와 문화사목의 이론과 실천이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앞으로 회칙이 제시하는 만남의 문화, 대화의 문화 개념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문화의 복음화 작업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교회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주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바오로 6세,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6.
-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_____,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_____,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2. 단행본

- 김민수, 『디지털 시대의 문화 복음화와 문화사목』, 평사리, 2008, 175~276쪽.
- _____, 『본당사목, 문화를 입다: 문화사목의 이해와 실제』, 평사리, 2017.
-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5, 33쪽.
- 신응철,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006, 24쪽.
- 오지섭, 박재신, 『서로와 모두를 위해』, 바오출판사, 192~194쪽.
- 이상철, 『죽은 신의 인문학』, 돌베개, 2018, 99~125쪽.
- 정혁현 역,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중문화 읽기』, IVP, 2004, 66쪽. Romanowski, William D. *Eyes Wide Open*, Brazos Press, 2001.
- 최지향 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청림출판, 2015.
- 한국교회사연구소, “사목직”, 『한국가톨릭대사전』, 제6권, 분도출판사, 1998, 3932~3933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202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천주교회 통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3. 정기간행물

- 강유진, “한국사회는 ‘혼자살기’를 선택할 것인가?: 가족 변화 실태를 중심으로”, 『월드뷰』, 2021, 5월호.
- 김민수, “새로운 복음화는 문화의 복음화이다”,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심포지엄, 명동가톨릭회관, 2013.
- 김상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9권, 1호, 2021, 57~74쪽.
- 박소망, “사상 첫 서비스노동 인식조사 [...] 10명 중 9명 ‘갑질 심각’”, 『노동법률』, 2021.9.15.
- 이수범과 송민호,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권 4호, 2020, 150~195쪽.
- 엄재중,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천주교회 사목 방향에 대한 서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월례내부세미나, 2021, 7쪽.
- 임영호, “[품격과 시장] 조희수 경쟁·정파성 버려야 개혁의 씨앗 움튼다.” 『신문과 방송』, 2021, 1월호, 14~19쪽.
- 함세웅,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님의 서울교구장 선임을 축하하며, 함께 ‘시대의 징표’를 읽고 기도합니다”,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편 『선포와 봉사』 140권, 2021.11, 6~29쪽.

4. 언론기사

- 김일우, “종교의 자유는 어디로? [...] 이슬람사원 두 달째 막은 대구 주민들”, 『한겨레신문』, 2021.4.15.
- 박문수, “‘한국 천주교회 교세’ 변동 추이 분석(2000~2019년)’, [박문수가 본 교회와 사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0.5.6.
- 설동훈, “고령화에 중요성 커지는 이주민 복지 정책 시급”, 『노컷뉴스』, 2020.4.7.
- 이지혜, “태아 생명권 보호·출산 선택하도록 사회 여건 개선하는 생명운동 필요”, 『가톨릭평화신문』, 2019.6.30.
- 정현진, “공동합의적 사목평의회, ‘함께 간다는 것은 서로 견디는 것’”,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1.8.2.
- 프란치스코 교황, “작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애를 함양하십시오”, 『바티칸 뉴스』, 한국어 서비스, 2021.12.4.

황경훈, “새 교구장 임명과 교회개혁”,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1.12.15.

5. 외국서적

Celine Hoyeau, “Pope sees no alternative to synodality as the way forward for the Church”, LaCroix International, September 21, 2021.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유용한 대안을 최근 반포된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2020)에서 찾고자 한다. 그 대안이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문화의 복음화’와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사목이다. 먼저, 본 논문은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소개한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문화의 복음화라는 렌즈로 현대 문화의 현실태를 성찰한다. 마지막으로, 회칙 「모든 형제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문화’를 사목과 선교에 적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의 복음화는 복음과 교회에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문화의 시대에 적합한 복음화의 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 교황들이 강조해온 새로운 복음화를 이어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문화의 복음화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현대세계의 문화가 파편화된 죽음의 문화임을 지적하며, 이 회칙의 핵심인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위한 대안으로 만남과 대화의 문화를 제시한다.

회칙 「모든 형제들」을 통해 바라본 한국 가톨릭교회는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교회의 세속화와 중산층화, 탈종교화, 성직자 중심주의, 이념갈등과 대립, 사회 참여의 약화 등의 교회 위기 징후가 매우 심각하다. 회칙에 준하여 문화의 복음화를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사목으로, 해외선교 사목, 생명 문화사목, 디지털 문화사목, 환경 문화사목, 독서사목, 칭찬사목 등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사목들이 비복음적이고 반생명적인 죽음의 문화를 사랑과 생명의 문화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화의 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다.

▶ 주제어: 문화의 복음화, 문화사목, 교황회칙 「모든 형제들」, 한국가톨릭교회, 보편적 형제애